

風水地理說과 建築計劃

風水地理에 依한 過去建築

朴 時 翼

1 意義

1-1. 風水地理와 建築과의 關係

風水地理의 本質이 天地의 生氣를 땅에 의하여 받아서 人生의 幸福을 영위코저 하는 것임으로 地中에 葬한 死者에게나 地上에 거주하는 生인에게도 地氣의 影響이 큰것은 동일하다.

다만 葬者는 地中에서 不動하나 生人은 地上에서 活動하는 차이에 의하여 生活上 필요한 여건이 葬者에 비하여 한층 더 追加된 것이라 할 수 있어서 地氣를 重要視하는 것은 모두 같다.

風水에서는 死者의 住所를 陰宅이라 하고 地上에 居住하는 生人의 居住地를 陽基라고 말하며 陰宅과 비교하여 쓰고 있다. 따라서, 陽基는 크기는 一國家를 말할 수도 있으며 한 都市 또는 邑 그리고 一家의 住宅을 말하기도 한다. 여기서 陽宅이라 하지않고 陽基라고 한것도 陽宅이 生人의 住宅만을 말함에 비하여 陽基라고 하면 住宅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使用에 필요한 각종 건물도 모두 包含한 큰 範圍의 뜻을 말한다. 따라서 陽基라고 하면 生活人의 터전을 말하게 되며 작게는 一個人의 집터도 될 수 있고 여러 住宅이 있는 部落 또는 市, 郡을 뜻할때도 있다.

따라서 陽基는 그 規模에 따라 大別하여 個人의 집터인 個人 陽基와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集團陽基로 區別되고 集團陽基에는 그 規模에 따라 一國, 道, 郡, 市, 邑, 및 部落等으로 나눌 수 있다.

風水 및 陰陽五行에 의하면 萬物은 陽과 陰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에 의하면 建物 或은 住宅도 “陽”이 되고 “火”가 되는 것으로 풀이한다. 이것은 住宅이나 建物이 그目的上 사람이 비나 추위로부터 保護를 받는 것에 큰 比重을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이 建物을 세우는 것은 그 建物을 一般의인 生活上의 必要로부터 세우게되나 이 建物은 地上에

새로운 한개의 “陽”을 만든 結果가 되며 이것으로 인하여 建物外的으로 發生되는 自然속의 새로운 運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風水地理에서는 더욱 重要視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建物로 인한 陰陽의 變化는 그 建物이서 는 땅의 風水의 性格에 따라 그 變化의 性質과 크기를 달리하게 된다. 이러한 例로 新羅는 黃龍寺 九層塔을 세워서 이로 인하여 國家를 外的으로부터 防禦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高麗때는 도참설에 따라 많은 궁궐을 지었으며 그로 인하여 國家의 태평과 발전을 祈願하였고 李太祖는 開城을 버리고 漢陽에 도읍터를 잡은 것도 모두 建物外的의 變化 즉 風水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즉 風水에서는 自然과 人間을 物質과 生物과의 關係로보는 것이 아니고 自然 즉 山野 및 水가 모두 生動하며 사람에게 影響을 주는 것은 마치 이들 自然은 巨大한 힘을 갖은 사람 以上の 生物로서 이 自然에 따라 사람의 運命도 左右하게 된다고 믿어 建物보다도 自然을 중요시하고 사람보다도 自然을 무섭게 여겼다.

이와같이 風水의으로는 한개의 建物도 無生命한 것으로서 이것이 단지 사람의 必要에만 應하는 消極的 物體로보는것 보다는 오히려 한 建物이 陽또는 陰으로서 自然이나 人間等과 서로 다른 것이 아니며 이들은 모두 같은 生命體로서 한 空間을 이루는 合同體로서 認識하게 된다. 따라서 建物은 사람을 위하는 目的은 즉 自然을 위하는 目的이며 또 自然이나 建物이 區別이 없고 自然과 人間에 차이가 없는 모두 同一한 生命으로 認定한다.

1-2. 居住地의 選定基準

陽基로서 適合한 땅은 그 形勢가 陰陽이 沖和하고 五行이 生氣를 충만한 곳을 吉地로 하여 藏風, 得水, 四砂, 方位 등도 陰宅에서와 같다. 그러나 規模上 陰宅은 좁은 산속에서도 가능하나 陽基는 生活에 필요한 資料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많은 사람이 모

여서 살기 위한 곳으로는 넓은 장소가 좋게 된다. 따라서 한 두개의 건물에만은 매우 좋은 땅이더라도 大地로서는 부적합한 것은 당연하다.

또한 陰宅에 있어서 그 周圉의 形勢를 重視하듯이 陽基에서도 地上의 形勢를 重視함은 그 周圉의 氣가 직접적으로 陽基에 影響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例로 高麗의 國都 開城은 칼날을 세우는 형상을 한 서울의 三角山 때문에 滅亡했다고 하며 平壤은 行丹形이어서 市內에서는 우물을 파는 것을 禁했다고 하며 서울은 舞鶴의 形이어서 宮城을 지을때 鶴의 날개를 먼저 늘려서 鶴이 날아가지 못하게 한후 궁궐을 세웠다는 이야기와 같이 陽基에서도 그 類形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

李重煥이 지은 捫里志에서 살터를 구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음을 본다.

가. 대지 : 살터를 잡는데에는 첫째 地理(땅, 山, 江, 바다등에 대한 形而上學的인 이치)가 좋아야 하고 다음 生利(그 땅에서 生産되는 物質的인 利益)가 좋아야 하며 다음 人心이 좋아야 하고 또 다음은 아름다운 산과 물이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에서 하나라도 모자라면 살기 좋은 땅이 아니다.

그런데 地理는 비록 좋아도 生利가 모자라면 오래 살 곳이 못되고 生利는 비록 좋더라도 地理가 나쁘면 또한 오래살곳이 못된다. 地理와 生利가 함께 좋으나 인심이 착하지 않으면 반듯이 後回할 일이 있게되고 가까운 곳에 道風할만한 山水가 없으면 情緒를 和暢하게 하지 못한다.

나. 地理 : 어떻게 地理를 論하는가? 먼저 水口를 보고 다음 들의 形勢를 본다. 다음에 산의 모양을 보고 다음에는 흙의 빛깔을 다음은 朝水를 본다. 무릇 水口가 영성하고 널다랗기만 하면 비록 좋은밭 만이랑과 넓은 집 천간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 세때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저절로 흩어져 없어진다. 그러므로 집터를 잡으려면 반드시 水口가 꼭 닫힌듯하고 그안에 들이 펼쳐진 곳을 눈여겨보아서 구할 것이다. 그러나 산중에서는 水口가 닫힌 곳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들판에서는 水口가 굳게 닫힌 곳이 어려우니 반드시 거슬러 흘러드는 물이 있어야 한다. 높은 산이나 그늘진 언덕이나 逆으로 흘러드는 물이 힘있게 版局을 가로 막았으면 좋은 곳이 된다. 막은 것이 한 겹이라도 진실로 좋지마는 세겹, 다섯겹이면 더욱 크게 좋다. 이런 곳이라야 完全하게 오랜 세대를 이어나갈터가 된다.

무릇 사람은 陽明한 기운을 받아서 태어났는바 하늘은 양명한 빛이니 하늘이 조금만 보이는 곳에는 결코 살곳이 아니다. 이런 까닭에 들이 넓을수록 터는 더욱 아름다운 것이다. 해와 달과 별 빛이 恒常 환하게 비치고 바람과 비와 차고 더운 氣候가 고르게 알맞은 곳이면 人才가 많이 나고 또 病도 적다. 사방 산이 높아서

해가 늦게 뜰으면서 일찍 빠지고 밤에는 혹 北斗星이 보이지 않는 곳은 가장 꺼리는 곳이다. 이런 곳은 양명한 빛이 적고 陰冷한 기운이 쉽게 侵入하여 或 雜鬼가 모여 들기도 한다. 또 朝夕으로 산안개와 氣가 사람을 병들게 하기 쉽다. 이 때문에 산골에 사는 것이 들에 사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큰 들판에 낮은 산이 둘러친 것은 산이라 하지 않고 모두 들이라 한다. 그것은 하늘빛이 막히지 아니하고 水氣도 멀리 통하기 때문이다. 높은 산중이라도 들이 펼쳐진 곳이라야 바야흐로 터가 된다.

무릇 산모양은 祖宗되는 산은 다락집이 치솟은 形勢라야 좋다는 堪輿家의 말이 있다. 主山이 秀麗하고 端正하고 清明하고 아담한 것이 상이다. 뒤에서 내려오는 山脈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들을건너다가 갑자기 높고 큰 봉우리로 솟아나고 支脈이 감싸들면서 골판(洞府)을 만들어 宮內에 들어온듯한 氣分이 나며 주산의 形勢가 穩重하고 豐大하여 겹집이나 높은 궁전같은 것이 다음이다. 사방 산이 멀리 있어서 平垣하고 넓으며 山脈이 平地에 뻗어 내려다가 물가에 그쳐서 들판터를 만든 것이 또 그다음이다.

가장 꺼리는 것은 산의 來脈이 약하고 둔하면서 생생한 氣色이 없거나 혹 산모양이 부서지고 비뚤어져서 길한 기운이 적은 곳이다. 땅에 생생한 빛과 길한 기운이 없으면 人才가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산모양을 살피지 아니할 수 없다.

다 土質 : 무릇 시골살이는 물복판이나 물가를 가릴것없이 土質이 砂土로서 굳고 촘촘하면 우물물도 맑고 차다. 이와같은 곳이면 살만한 곳이다. 만약 붉은 찰흙과 검은 자갈이던지 또는 누런 진흙이면 이것은 죽은 흙이다. 그 땅에서 나는 우물물에는 반듯이 장기가 있는데 이와 같아서는 살만한 곳이 못된다.

라. 水 : 무릇 물이 없는 곳은 사람이 살곳이 못된다. 산에는 반듯이 물이 있어야 한다. 물과 짝한 다음이라야 바야흐로 生成하는 妙함을 다할 수 있다. 그러나 물은 반듯이 흘러오고 흘러감이 地理에 適當한 다음이라야 비로써 精氣를 모아 기르게 된다. 물은 財祿을 맡은 것이므로 큰 물가에 富裕한 집과 유명한 마을이 많다. 비록 산중이라도 또한 시내와 澗水 물이 모이는 곳이라야 여러대를 이어가며 오랫동안 살수 있는 터가 된다. 朝水라는 것은 물너머의 물을 말하는 것이다. 작은 냇물은 역으로 흘러드는 것이 길하다. 기름진 곳이 제일이고 배와 수레와 사람과 사람과 물자가 모여 들어서 있는 것없는 것을 서로 바꿀수 있는 곳이 그다음이다.

라. 人心 : 孔子께서 「마을 人心이 착한 곳이 좋다. 착한 곳을 가려서 살지 아니하면 어찌 智慧롭다 하라」 하시었다. 또 옛적에 孟子의 어머니님이 세 번이나 집을 옮긴 것도 아들의 教育을 위한 것이었다. 옮은 풍속을 가리지 아니하면 다만 自身에게만 해로울뿐 아니라 子孫들도 반듯이 나쁜 물이 들어서 그르치게 될 근심이 있다. 그러므로 살터를 잡음에 있어서 그 地方의 풍속을 살피지 않

을 수 없다.

우리나라 八道中에 평안도는 인심이 醇厚하기가 첫째이고 다음은 慶尙道로서 風俗이 眞實하다. 함경도는 地域이 오랑캐 땅과 잇닿았으므로 백성의 성질이 모두 굳세고 사나우며 黃海道는 山水가 험한 까닭에 백성이 사납고 모질다. 江原道는 산골백성이어서 많이 어리석고 전라도는 오로지 간사함을 숭상하여 나쁜데에 쉽게 움직인다. 경기도는 都城밖의 들판 고을은 백성의 재물이 보잘것 없고 오로지 勢道와 財利에만 쫓는데 이것이 八道人心의 大略이다. 택리리

p. 176

以上에서 말한바와 같이 각요소는 生人에 必要로 하는 條件들이나 陰宅에 있어서도 빼어 놓을 수 없는 要素들이다.

이와같이 各條件들이 個人陽基 및 集團陽基에 기본이 됨을 알수 있다.

2. 住宅과 風水

2-1. 鄭苦齋의 卜居編

風水에 立脚한 住宅의 地의 條件은 앞節에서 말한바와 같다. 그리고 風水信仰은 地氣의 生死 및 吉凶을 觀察하여 이에 의하여 幸福을 받고저함에 있기 때문에 陰宅에서 뿐만 아니라 生人의 住宅을 짓는데에도 그 터를 고르는 것부터 始作하여 大門, 변소 등등을 配置함에 있어서나 심지어 花草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吉凶을 陰陽論에 立脚하여 따질 정도로 風水를 중요시 하였다.

住宅으로서의 吉地를 略論한다면 그것은 天地의 精氣가 貯積되어 生氣를 發하는 곳으로 바람과 햇빛이 맑고 따뜻하여야 하며 물(水)이 충족하고 깨끗하고 맛이 좋아 草木과 異獸가 잘살 수 있는 곳이고 사람의 生活이 發達伸張케 하여 주는 形象을 갖춘 땅이어야 한다.

以上에서 열거한 것은 이미 앞 節에서 論한바 있다.

陰宅에서는 地中の 生氣를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시 하나 住宅에서는 生人이 地下의 生氣를 직접 탈수 없기 때문에 地上의 類形에 더 比重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生人이 日常 이를 바라보게 되고 接觸하게 되는 機會가 많아서 이 類形의 影響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地中の 生氣를 찾는 어려움보다는 地上의 主위의 상태를 一般的인 常識으로도 判別할 수 있기 때문에 風水에 專門인 조예가 깊은 風水師의 수고를 꺼치지 않아도 되었다.

또한 地上의 類形을 중요시하는 사상은 住宅의 平面的 形態도 “日” “月” “用” “吉” 字形 등으로 하여 반가운 文字形을 받으면 하늘에 福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와 반대로 “亡” 字形은 피하였다.

이와같이 吉地는 장차 發展할 수 있는 吉形을 重要하게 여겼다. 用字는 日字月字의 合字로 보아 이것을 吉形으로 보고 이 이외에 「多」 「也」 「乃」 字等도 「多」는 「多」 祥을, 「也」는 有終을 그리고 「乃」는 「乃」 字 즉 生産을 의미하는 까닭으로 陽宅에서나 陰宅에서도 吉形으로 본다.

李朝末期의 住宅에 관한 風水 및 俗信에 대하여 鄭苦齋의 山林經濟 第一卜居編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卜居總論

대저 一區를 建築코저할때 者는 경솔하게 자리를 정하지 말며 반듯이 먼저 風氣의 藏聚, 面背의 安穩을 審択하여 永久한 計劃을 하여야 한다.

(2) 地勢論

(가) 우선 地勢를 觀察하여야 하며 水陸이 함께 있는 곳이 가장 좋다. 따라서 山을 등지고 湖를 면하고 있음이 좋고 그 勢가 寬大할 것이며 또 緊束하면 財利가 모이게 된다.

(나) 龍이 가까이 머리를 바로하고 있는 곳은 吉하며 手脚을 벌려 받아 들이는 形이면 더욱 좋다.

(다) 建物이 平衡을 이루고 左右가 좁지 않고 明堂이 넓고 흙이 윤기가 있고 샘(泉) 달며(甘) 光沢과 陽基가 있고 竹木이 울창하여 그 氣가 旺盛하면 吉하고 만약 흙이 乾燥하고 윤택하지 않으면 凶하다.

(라) 陽居가 一山一水하여 有情하여도 그 局이 적으면 吉함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 局이 大勢大形이면 富貴가 크고 오래간다.

(마) 큰산(大山)에 기대어 집을 지으면 沙汰가 나기 쉽고 江海에 가까우면 水災를 받게 된다. 또 물이 나쁘면 風土病을 앓게 되고 猛獸나 盜賊이 出沒하는 곳은 피하여야 하며 시끄러운 곳도 좋지 못하다.

(바) 地形이 평탄하고 끝없이 넓은 곳이라도 조금 높은 곳(단 1尺이라도)이 좋다.

(사) 山谷에 있는 陽氣는 平地에 山이 사방을 감싸주어야 하고 움푹 파여진 곳이 없어야 하며 水口가 단단하고 明堂이 넓고 개천을 끼고 있고 溪谷에 의지한 곳이 좋다. 平地가 좁고 四山이 높으면 이곳은 피하여야 한다. 山谷의 陽基는 바람을 모이게 하는 곳이 吉하고 함부로 땅을 파서 넓히려고 함은 氣脉을 損傷케 한다.

(3) 宅址論

(가) 宅地는 東高西低하면 生氣가 融盛하고 西高東低하면 富豪가 되지 않고 前高後低하면 門戶敗絶하고 後高前低하면 牛馬가 많아지고 큰 人物이 난다. 四面이 높고 中央이 낮으면 앞에는 좋으나 뒤에

는 가난하게 된다.

平垣하면大吉이다.

(나) 宅址는 卯酉나 子午에 있으면 大凶이다. 南北이 길고 東西가 좁으면 좋고 東西가 길고 南北이 좁으면 初凶하고 後吉하다. 右長 左短하면 富하다. 左長右短하면 子孫小하고 前濶하고 後狹하면 貧하다. 前狹하고 後濶하면 富貴.

(다) 住宅의 左에 흐르는 물을 靑龍 右에 흐르는 것을 白虎라 하고 앞에 汚池가 있는 것을 走雀이라 하고 뒤에 丘陵이 있음을 玄武라 불러 이러한 곳을 貴地가 된다.

(라) 住宅이 궁궐이나 신선이 사는 곳의 옆에 위치하면 主人이 壽를 더하게 되고 人安하고 物資가 豊富하며 神前, 仏寺, 吉獄, 戰場, 察丘, 廢址, 油房, 石斷, 衡水, 道門, 서낭당의 근처에는 좋지 않다.

(4) 水 論

(가) 물은 넓고 悠悠하여 나를 돌보고 머물러야 하고 고여서 뒤로 빠지지 않고 접접한 水田은 海潮를 이기고 또 背後를 감싸주는 것이 좋다. 만약 물이 등을 찌르고 옆구리를 쏘거나 팔을 뚫거나 앞으로 오거나 빠지는 것 등은 凶하다.

(5) 砂 論

住宅의 左右前의 砂가 단정하고 부드러우면 科擧에 及第하고 巽辛向에 卓筆形이 보이면 文貴하다. 堆甲屯軍形은 武貴하고 머리가 기울고 비끼면 盜賊이 되고 一山이 孤擧하면 僧道가 되고 燥火 疫은 火災를 당하고 掃蕩은 爭訟한다.

(6) 風 論

子風이 들어오면 子孫이 물에 빠지고 癸風이면 男女가 淫慾하며 丑風은 軍에 들어가 落伍되고 艮風은 고질병을 얻게되고 寅風은 호랑이에게 傷害되고 甲卯風은 道路에서 死亡하고 乙風은 子孫이 靑育하고 辰巽風은 主人이 頭風하고 巳丙風은 蛇傷하고 午丁風은 水穴하고 未風은 폐병에 걸리고 坤風은 公訟을 申康風은 敗家 辛風은 苦生하고 戌乾風은 고질병, 亥壬風은 貧賤하다.

(7) 造屋論

(가) 家舍의 크기는 人數의 半을 계산하여 그집의 間數로 한다. 많아도 二十四間을 넘을 수 없다. (一間은 約一坪半) 집이 너무 크면 不吉하고 작은 집은 人吉하다.

(나) 집은 너무 高明하면 나쁘고 多陽盛하면 마음을 상한다. (너무 밝으면 발을 내리고 어두우면 이것을 접는다.)

(다) 집의 形이 “日” “月” “口” “吉”의 字와 같으면 좋고 “工” “戶”形은 不吉하다.

(라) 造屋의 間數는 반드시 單數를 써야 吉하고 기둥의 尺數및 서까래의 數도 모두 單數가 되도록 한

다.

(마) 세우는 순서는 住房을 맨처음에 그리고 마루 다음에 그 이외의 방들을 세우고 집이 끝난 후에 大門을 세운다. 大略 안에서 부터 밖으로 지어나간다.

(바) 변소 廁室은 집의 内外에 각 한개씩 설치하고. 밝고 깨끗하여야 하고 매일매일 積糞을 내보내야 한다. 여름에는 蓴茶를 한주먹가량 뿌려서 구더기를 방지한다.

(사) 灰室은 西方(西方)이 좋고 변소옆에 있어야 좋다. 또한 바람을 피하는 곳이어야 한다.

(7) 造門論

(가) 봄에는 東, 여름에 南, 가을에 西, 겨울에 北門을 지어서는 不된다.

(나) 집에 비하여 門이 작으면 吉하고 문이 크면 凶하고 大門과 中門이 마주 있으면 나쁘다.

(다) 집의 정면으로 大門이 있으면 不吉하고 길모퉁이에 있는것도 凶하다.

(8) 우물과 부엌論(井竈)

(가) 우물의 위치는 本山의 生旺한 方向에 두어야 吉하다. 가령 本山이 金體일 경우 西쪽에 木體이면 東쪽이 좋다)

(나) 우물은 建物の 前後 房앞은 피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물과 부엌은 서로 보이지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主人 男女가 陰亂해 진다. 우물관흙으로 부엌을 지어서는 안되고 부엌의 흙으로 우물을 메우면 병어리나 장님이 난다.

(다) 五月辰日에 돼지머리로 부엌에 祭祝지내면 財産이 萬倍하고 四月 丁巳日에 祭지내면 財産이 百倍, 正月 巳丑日에 白鷄로 祭지내면 누에가 잘자라나 여자가 祭지내면 不祥이다.

(라) 개(太)로 祭지내면 凶敗한다.

(마) 부엌의 위치는 東南向이 吉하고 東北은 凶하다.

(9) 宅木論

(가) 住宅안에 심는 나무는 소나무와 대나무(松竹)가 좋다. 松竹이 울창하면 生氣가 旺하고 俗氣가 없어진다. 또 陽居에는 陰한것이 陰居에는 陽한것이 서로 陰陽의 相和를 이루워 吉하다.

(나) 정원의 가운데 나무를 심으면 “困”字가 되어 不吉하다.

(다) 果樹가 무성하여 住宅의 左右에 기대어 있음은 피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主人이 병든다. 그리고 큰나무의 가지가 집이나 門에 닿는것도 不吉하다.

(라) 집 가까이 가운데 오래된 나무는 피한다.

(마) 나무뿌리가 집처마밑을 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바) 집가까이 무궁화나 단풍을 심지 말라. 일반적으로 中庭에는 植樹하지 않고 꽃을 栽培하는 것은

좋다.

(10) 五虛, 五實論

住宅에 五虛가 있으면 凶하고 五實하면 富貴한다.

(가) 五 虛

1. 집이 크고 사람수가 적은것.
2. 문이 크고 집이 작은것
3. 담장이 완전하지 못한것
4. 우물과 부엌의 위치가 나쁜것
5. 마당이 건물에 비하여 너무 넓은것

(나) 五 實

1. 집이 작고 사람이 많은 것
2. 집이 크고 문이 작은것
3. 담장이 완전한것
4. 집이 작고 가축이 많은것
5. 물이 東南으로 흐르는것

2-2. 家相에 관한 諸理論

한 가정 혹은 그 가정의 一員이 運勢가 그들이 居住하고 있는 住宅의 風水地理 및 陰陽五行說에 의하여 吉凶이 고정되어 집이 마치 觀相, 手相, 骨相, 足相 等과 같이 運命的인 뜻으로 家相이란 말이 최근에 쓰여지고 있다.

이 家相이란 말은 本來 韓國 古有的의 말이 아니고 李祖末基에도 使用되지 않았음은 村山智順이 昭和六年에 쓴 “朝鮮의 風水”라는 題目의 朝鮮民間信仰調查資料 第三十一輯에 “家相”이란 文句는 전혀 記錄되어 있지 않고 오직 「住宅의 風水」라고만 쓰여진 것으로 보아 日帝時代以後부터 使用되어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家相은 先祖의 墓가 後孫에 影響을 주는 것과 같은 뜻에서 단지 住宅의 風水라고 해도 같은 뜻으로 해석된다.

오늘날 住宅의 風水(家相)에 대하여 저술되어 있는 冊으로는 三卷이 있다. (1978. 7 現在)

1. 家相의 科學 金瑞京編著 玄岩社刊
2. 家相學入門 金泰樹著 明文堂刊
3. 明堂論全集 張龍得著 堯丑文化社刊

以上の 三卷의 內容중에 特色을 살피면 아래와 같다.

(1) 家相의 科學

이 冊의 內容은 주로 앞에서 말한 鄭苦鏞의 山林經濟第一卜居編에 수록되어 있는 內容과 大同小異하다. 즉 건축(여기서는 住宅)에 있어서 一般常識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컨대

(가) 大門앞에 큰 나무가 있으면 凶(43페이지)

(나) 집터는 앞이 낮고 뒤가 높은 집이 吉(56페이지)

(다) 裏室이 大門과 一直線上에 있으면 凶(121페이지) 등이다.

以上과 같은 內容은 住宅이나 建築에 專門的인 知識이 없는 一般人에게는 도움이 되리라고 믿어진다. 그러나 이 冊의 附錄篇의 「알기쉬운 家相判斷法」에서는 凶事가 일어났던 住宅의 平面圖와 그러한 住宅에서는 不幸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當然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例컨대 “一家가 沒死한집”(페이지333) 또는 “青年두명이 죽은집” 等으로 이러한 집이 家相으로 볼때 不幸을 초래케한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집은 一般 建築專門家가 보더라도 집이 몹시 오래되었고 計劃없이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構造的으로나 機能的 또한 美的으로도 좋은 점이 없어서 常識的으로도 좋지 않은 집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와 똑같은 집에서 모두 이와같은 不幸한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冊에 附錄된 實例는 一般的인 妥當性이 貧困하다고 생각된다.

(2) 家相學入門

이 冊의 內容은 앞에 설명한 “家相의 科學”과 흡사한 점이 있으나(家相의 科學中的 附錄編의 著者가 바로 이 家相入門의 著者임) “家相의 科學”中에 있는 實例와 같은 것은 실리지 않아서 오히려 좀더 次元 높은 면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陰陽五行의 理論을 應用함이 지나치게 많은듯 한 감이 있어 一般人이 “家相의 科學”보다는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뿐만아니라 저자의 家相理論의 主와 從을 區別하지 못하게 그 內容이 서로 엮여져 있고 한 매목에서도 前後가 서로 맞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例컨대 住宅에 있어서 大門의 위치에 관하여 쓰여진 것을 보면 첫째 이 冊 118페이지 巽章 門편에

「……따라서 各種 門은 門 自體만의 方立도 중요하지만 宅向과 關聯시킨 方立와 方向이 훨씬 더 중요하다.筆者가 方位本位인 八宅家相術을 不信하고 方向本位로 門을 따지는 奇門遁甲家相術을 대체로 準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여 八宅家相術을 不信한다고 지적한 것에 反하여 同冊 120페이지에는 「……大門은 建築上 道路에 따라 그 위치와 方向이 制限을 받게 마련이지만 우리나라에 널리 퍼진 八宅家相術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門位를 吉方門으로 參考하기 바란다.

居室의 집터의 中心에서 보아 北, 南, 東, 南東方에 있으면 위의 방위중 어느 한 方位에 大門이 있으면 吉하다.

居室이 집터의 중심에서 보아 北東, 南西, 北西, 西方에 있으면 위의 방위중 어느한 방위에 大門이 있는 것이 吉하다. 이것은 韓屋인 경우 더 잘맞는다」라고 하여 韓屋인 경우에 더 잘맞는다고 하여 八宅家相術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하였으니 118페이지에서는 不信한다 하였고 120페이지에 잘맞으니 참고하라고 하여 서로 맞지 않는다.

3. 都市와 風水

3-1 鎮 山

대부분의 都市(또는 郡, 邑, 面)는 그 뒷편에 山을 갖고 있는 平地에다 그 터를 잡고 있다. 이 때의 이 뒷산을 그 陽基의 鎮山이라고 부른다. 이 鎮山은 陽基를 鎮護하는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붙이게 되었다. 이 鎮山은 神은 上方에 存在한다는 觀念으로부터 그 神에

의하여 生活의 安居를 保護받고져 하는 信仰心의 일부라 할수 있다. 그러나 鎮山이 없는 곳에서는 老樹의 木神에 의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信仰心이 風水와도 결합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즉 땅의 生氣가 흐르고 그 生氣가 모이는 곳에서 生活의 幸福을 누리고져하는 風水의인 곳은 바로 來龍이 있어야 하며 이 來龍은 山으로 부터 나오게 되기 때문에 좋은 鎮山은 바로 좋은 生氣를 주게 되기 때문에 이 鎮山에 의하여 集團陽氣의 터를 삼게되었다. 이와같이 風水理論에 立脚하여 都邑의 터를 잡게된 까닭으로 都邑地는 風水에서 重要視하는 藏風得水 또는 靑龍, 白虎, 朱雀, 玄武, 四砂 및 朝案等과 또 그의 形勢등에 세심한 관찰을 요하게 된다.

3-2. 類形 信仰

都市 또는 邑은 風水의으로도 集團陽基에 속하고 이 陽基는 陰宅과 같이 風水의 原則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 藏風, 得水 등을 배놓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集團陽基로서의 터도 穴인 점에서는 陰宅과 같으나 陽基의 穴은 陰宅보다도 넓어야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살수 있다.

그러나 陰宅은 葬者가 地中에 흐르는 生氣를 직접 몸에 받는 것에 반하여 陽宅은 生氣있는 땅위에 집을 짓고 살아 地中의 生氣를 間接的으로 받고 그 반면에 地上의 周圍의 形勢의 影響을 直接的으로 받게되어 類形을 받게되어 類形을 重視하게 된다.

즉 形勢의 善惡順逆은 同氣感応하게 되어 生人에게 그 影響을 직접적으로 미치게 하고 있어 陰陽五行의 根本觀念뿐만 아니라 그 形勢의 類形 類物에 의하여 陰陽의 調和, 五行의 相生相克을 說明하게 되고 따라서 그곳에 사는 사람의 吉凶을 子測하여 이에 대비케 하게한다. 이와같이 類形을 重視하는 정도가 깊어져서 마치 類形 類物 信仰과 같이 尊重되었다. 이러한 實例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開城은 서울의 三角山이 칼날을 세워놓은 것과 같은 形을 이루어 開城의 남쪽에서 바라다 보여 이로 인 해 開城이 亡했다고 하며 평양은 行舟形이어서 市內에 우물과는 것을 금했다고도 한다.

3-3. 都邑地

風水地理의으로 都市가 들어설 수 있는 자리를 判別하는 基準은 앞에서 말한바 있으나 略述하면 다음의 六項目을 들을 수 있다.

가. 水口 : 水口가 넓고 벌어져 있으면 아무리 큰 富者라도 그 財産을 伝世할 수 없고 自然히 消散耗敗하게 된다. 따라서 水口는 바로 빠지지 않고 막힌듯한 山사이로 흘러 나가는 곳이 좋다.

나. 野勢 : 들판은 넓어야 좋고 하늘의 陽明한 氣가 충만하고 日月과 星辰의 光이 항상 빛나게 비춰주는 곳이 좋으며 氣候가 급히 변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만약 주위의 四山이 높

아서 해가 솟음이 늦고 저녁에 해짐이 빠르면 또한 밤에 北斗의 靈光이 보이지 않는 곳에는 반듯이 病을 얻게 된다

다. 山形 : 山形은 主山이 秀麗端正하고 淸明하여야 하고 그 來龍이 生氣있게 活動하는 듯 하고 四山은 멀리 물러서서 감싸고 있어야 한다. 만약 來龍이 弱하고 회미하면 이곳은 生氣가 없는 곳이다.

라. 土色 : 땅의 색깔이 生色이면 吉氣하여 人才가 多出하나 반면에 찰흙 혹은 자갈이 많은 땅에는 井泉이 좋지 않아 잘 살수 없다.

마. 水理 : 山은 반듯이 물이 있어야 生氣가 나타난다. 이와같이 陽基도 물이 있으면 財祿이 딸게 되어 물가에는 富厚한 집들이 서게 되고 山中에서도 시냇물을 끼고 있는 洞里가 모여 살기에 좋다.

六. 朝山朝水 : 주변 산이 단정하지 못하고 모양이 어지럽거나 놀라서 날뛰는 듯한 곳에는 살곳이 못되며 물은 小川小溪는 逆한것이 吉하나 大川大江은 逆해서는 안된다.

이상에 열거한 六項目은 陽宅에서 뿐만 아니라 陰宅에서도 결코 빼어 놓을 수 없는 條件들이다.

4. 서울의 風水地理

4-1. 서울의 歷史

歷史에 의하면 現在의 서울이 都邑地로 된 것은 매우 오래 전부터이다. 즉 三國時代 百濟의 始祖 溫祚王이 國을 建하여 河南의 慰禮에 都邑을 하였다. (BC 18年) 즉 그는 高句麗의 東明 聖王이 두려워 그의 兄 沸流와 그의 臣下를 거느리고 南行하여 지금의 漢江의 北쪽에 都邑을 定하고 慰禮城이라 한것으로부터 서울의 歷史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후 百濟 二十代 蓋鹵王이 高句麗로부터 攻擊을 받아 그 都邑을 南쪽 熊津(現公州)로 옮기기 전까지 약 百二十여년을 지금의 서울에서 都邑한 것이 王都로된 最初이다. 그후 高麗의 中葉에는 서울의 南山(당시에 木覓山)에 宮을 지어 南京으로 하여 開城(당시 松兵)을 中京으로 삼고 平壤을 西京으로 하였으며 高麗末葉에는 이곳으로 遷都의 의견이 조정에서 있었다. 그후 李朝太祖가 등극하여 開城에서 즉위한 직후에 無學의 주장을 받아들여 遷都를 결심하였다. 처음에는 鷄龍山으로 國都를 삼으려 하였으나 漢陽으로 변경하여 白岳의 南쪽에 궁궐을(지금의 景福宮)세우고 즉위 三年十月一日 官을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후 定宗때一時 開城으로 遷都하였지만 太宗 五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六百여년간 國都로 되어져 왔다.

4-2. 도선의 地理說과 高麗 肅完의 遷都計劃

도선의 姓은 金氏인데 新羅 第四十二代 興德王二年 (AD 827年)에 金羅南道 靈岩에서 出生하여 十五歲에 出家하였고 二十歲頃에 惠徹大師에게 學業을 닦은후 그 名聲이 四方에 들렸고 第五十二代 李孝王二年 (AD 892年)에 七十二歲로 入寂하였다.

도선은 陰陽地現說의 完師로 스스로 믿으며 高麗太祖의 出生을 予言하였고 또 米生君子를 위하여 一卷의 秘書를 편찬하여 王에게 献上하였다고 하며 歷大君王과 民衆은 그를 信奉하였다 한다. 高麗 第八代 顯完은 도선에게 大禪師라는 諡號를 贈하였고 第十五代 肅宗은 王師의 號를 加하였고 第二十七代 仁完은 다시 先覺國師로 追封하였으며 第十八代 毅宗은 入寂地인 全羅道 白漢山 玉龍寺에 碑를 建入하였다. 이리하여 도선의 秘說은 널리 世上에 流布되어 當時 人心을 움직였다. 各君王 이 서울 巡幸과 麗朝末期에 遷都 計劃도 또한 도선 國師의 說에 움직임이 더 크다고 하겠다.

第十五代 肅宗元年 夏六月 (AD 1096年)에 衛慰承同 正金謂碑은 도선 秘記를 根拠로 하여 새로히 都城을 南京 (漢陽)에 造宮하고 遷都하기를 請하였다. 즉 「道說記에 보면 高麗에 三京이 있으니 松京 (開城)을 中京 木喬壤 (서울)은 南京 平壤은 西京인지데 十一, 十二, 正月은 中京에 住하고 三四五六月은 南京에 住하고 七八九十月은 西京에 住한즉 三十六國이 來朝하고 또 開國後 百六十四年은 木喬城에 都한다」하였으니 지금 이때가 正히 新京에 住할 時期라 現國內에 中京과 南京은 있으니 南京이 빠졌으니 三角山南과 木喬北에 都城을 建立하고 時를 따라 巡駐하자는 것이다.

王은 이 말을 받고 四年 秋九月에 宰臣과 日官에게 命하여 楊州에 南京을 세울것을 議論하게 하고 同月 二十八日에 王이 親히 王妃와 元子 및 三角山에 幸行하여 常惠寺와 僧伽密을 經하여 州 (現 서울)에 이르러 宅都의 地를 占하고 後에 仁慈寺와 補穴寺를 經하여 十月 十五日 還宮하였다. 慈 慈

4-3. 李太祖의 登極

李太祖 李成桂는 高麗王氏의 後를 繼承하여 西紀 一三九四年 七月十七日에 開城壽昌宮에서 即位하여 國號를 朝鮮이라 하였다.

李太祖는 國都를 옮김으로써 人心을 一新하고 邦家萬代의 基礎를 確立하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太祖 即位 元年 八月에 먼저 國都를 物色하기 위하여 同月 十五日에 三司 右僕射 李恬을 漢陽에 遣하여 宮室의 修葺을 命하였을때 마침 天候 互寒과 또 諸般準備가 未備하였으므로 이를 곧 中止하였다. 太祖는 그다음 權仲和를 全羅道에 보내어 國都를 特色하게 하였으니 翌年 正月二日에 權仲和는 吉地의 山水形勢圖와 鷄龍山의 都邑地圖를 올리니 太祖는 同十八日에 親히 그 地域을 調查하기 위해서 開城을 出發하여 二十一日에 檜巖寺에 이르러 王師自超 (無

學)의 同行을 求하여 鷄龍山으로 向하였다. 二月八日에 鷄龍山에 到着하여 이곳에 머무르며 地形을 調查하였고 同十三日에 太祖는 鷄龍山을 出發할때 商議門下附事 金湊 知中樞 朴永忠, 前密直 崔文夕을 當地에 머물게하여 造宮 靑任을 맡기었다. 同三月에 新都에 附屬한 役徒等을 徵發하여 鷄龍山에 集合시키고 工事進을 促하였다.

4-4. 河崙과 漢陽城

元來 鷄龍山의 選定은 書雲觀의 說을 依持하였었다. 그러나 當時 凶讖說의 權威者로서 알려진 京畿左右道 觀察使 河崙은 自己의 所見을 堅持하여 이를 極力反對 하였다. 그 이유는 鷄龍山의 땅은 山은 乾하고 水는 巽方으로 흐르니 이는 宋朝 胡舞申의 書에 이른바 水長生은 破局되어 衰敗에 들어 있음으로 이 地帶는 不吉하다는 理由였다.

李太祖는 말을 옮기여 기고 다시 權仲和, 鄭道傳等에게 命하여 河崙說을 基礎로 高麗時代 諸山陵의 基幹을 調查하여 吉凶을 點檢하였는데 事實上 河崙의 說이 符合하였다. 이리하여 急히 着手하였던 鷄龍山의 新都經營을 中止하고 다시 河崙의 主張에 依拠하여 漢陽附近에 地地를 命하였다. 그러나 漢陽을 調查하고 돌아온者中에는 이곳이 王都되기에 적합하나 明堂地의 地로서는 좁은 感이 있음을 啓上하였다. 그러나 河崙은 主張하기를 이곳이 오히려 開城이나 平壤에 比하여 넓어 王都로서 마땅하다고 하였다. 이와같은 議論이 紛紛한 所以는 當時 風水地理學은 사람마다 所見을 各各 달리하는 까닭인데 秘錄은 亦是 異同하여 正邪를 區別하기에 어려운 까닭이다. 따라서 太祖는 곧 親行하였으나 鄭道傳等은 遷都尙早論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太祖는 高麗가 亡하게 된것은 地德이 衰한 原因이라고 더욱 遷都의 뜻을 堅固히 하였다. 그리하여 서울의 땅을 다시 친히 旧關의 基地와 山河의 形勢를 觀望하니 이땅은 漕運의 便이 있고 里程이 均等하여 人馬의 便이 있음으로 太祖는 王都되기에 足하다 생각하고 먼저 判書雲觀事 尹 韋達에게 그 意見を 下問하니尹은 곧,

「我國境內에서 松岳이 第一이고 이곳은 그 다음이 오나 다못 恨하는 바는 乾方이 低下하여 水泉 (明堂)이 枯渴합니다」하고 反對하니 太祖는 無學王師에게 또다시 그 意見を 물으니 「이곳은 四面이 秀高하고 中央이 平衡하여 마땅히 都邑할만한 好適地입니다」하고 無學이 對答하니 太祖는 다시 諸臣을 돌아보고 이를 議論하라 하니 諸臣은 太祖의 뜻이 堅固한 것을 알고 「반듯이 遷都하자면 이곳이 可습합니다」라고 答上하니 太祖는 기쁘게 생각하고 이곳 漢陽으로 新都를 定하였다.

4-5. 서울의 風水

서울은 東經 126°59分, 北緯 37°34分에 위치하여 北에 白岳 (지금의 北岳) 南에 南山, 西에 仁王山, 東에 駱駝

산이 널려서 있고 連山環擁하여 天成的 城廓을 이루었고 漢江의 물은 城밖에 東南一帶를 돌아서 山河 禁帶한 形勝地이다. 北方에는 三角山과 北岳의 두산이 있고 三角山은 그 높이가 636메타로 北漢山이라고도 불러 지는데 江原道の 分水嶺으로부터 出發한 脉이 楊州(現서울북쪽) 西南에 道峯山을 이루었고 그 餘脉이 突出하여 山脉을 이루워 白雲, 國望, 仁壽의 三峯을 구름위에 突出시켜 마치 연꽃과 같고 세개의 角을 이룬것으로 인하여 三角이라 이름하게 되었다. 國望峯은 萬景台라고도 하는데 이 산위에 오르면 萬景이 저절로 환하게 보이게 되기 때문이며 國望이라 부르게 된것은 일찍이 李太祖가 無學으로 하여금 國都를 터를 찾도록 할때 無學이 이곳에 올라서서 國都의 땅을 살펴보았다고 하여 國望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仁壽峯은 白雲의 東쪽에 있어서「仁者樂山」「仁者壽」라는 뜻에서 仁壽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北岳山은 높이 143m 三角山의 南쪽에 있어서 高麗時代에는 面岳이라 하였고 三角山 萬景台의 支脉이 突出하여 이 산을 이루워 마치 모란꽃이 장차 필려고 하는 상태라고 하며 서울의 鎮山이고 이 산기슭에 궁궐의 터를 앉히었다. 또 서울의 南쪽가까이에는 南山이 있어서 높이는 265m 이고 木岾(목역)山이라고도 불리워졌었다. 이 南山의 最高峰을 蚕頭라 하고 이 南山이 서울의 案山이 된다.

이와같이 서울의 터는 산과 水에 있어서 큰 明堂을 이루고 있음이 韓半島에서는 第一이며 東國輿地勝覽 에도 「京都背負華山. 面對 漢水, 形勝甲天下」 서울땅이 뒤에는 華山이 있고 앞에는 漢江이 있어서 그 形이 天下에 제일이다)라고 하여있다. 이와같이 서울은 風水的 으로 보아 國都로서 가장 適合하여 古來로 王朝를 세운자는 이곳을 한편 두려워 하게 되었고 한편 이곳의 主人이 되 고자 하였다.

5-6. 서울의 風水伝説

서울(漢陽)의 風水에 관한 伝説은 無數히 많다. 이 중에 대표적인 것을 들면 아래와 같다.

(가) 도선의 秘記에 「繼王者李而都於漢陽」있어서 高麗時代부터 漢陽땅을 꺼리되어 이곳에 李樹를 심어 이것이 무성하여지면 代草하여 버리고 그 氣를 없애는 일까지 하였다 한다. 이렇듯 漢陽땅은 李氏의 王都로 先天的으로 運命지어져 왔다고 한다.

서울의 地脉은 咸鏡道の 安辺 鉄嶺의 一脉이 南行 五六百里 楊州명의 萬丈石峰의 道峯山이 되고 이로부터 南西쪽으로 向하여 내려가 三角山 白雲台를 만들었고 이로부터 또 南下하여 萬景台가 되고 그의 한가지가 다시 南下하여 白岳을 만들었다하고 風水學 木體來龍이고 貧獲星來龍이라 불려지고 있다. 이것은 또 서울이 主山이 木星이기 때문에 李氏는 木星임으로 서울은 木星의 王이다 스릴 곳임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다.

(나) 아직 城廓의 位置를 計酬하지 못하고 궁궐만을

짓고 있던때 하루는 大雪이 내려서 다음날 아침에 보니 눈이 一線을 긋고 있어서 宮의 안쪽은 눈이 녹아 있고 바깥쪽은 녹지않고 쌓여 있었다고 한다. 이에 太祖가 이를 보고 이는 반듯이 하늘의 가르침이라고 믿고 이눈의 경계선을 따라서 城廓을 築城하였다 한다.

(다) 서울의 地勢가 東쪽과 南西쪽이 다른 쪽에 비하여 顯著하게 弱하다. 따라서 城壁도 西方과 南西쪽이 약하였다. 이것은 地勢에 따라 城廓을 쌓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漢陽이 東쪽의 日本에게 壬辰亂을 만나게 되었고 南西쪽에 淸國에 의하여 丙子의 亂을 맞게 되었다고 하며 또 漢陽임에 대하여 東쪽은 五行上木이 됨으로 兩木 相爭한다는 五行의 理에 의하여 相克하는 것임으로 또 南西方은 五行上 土이고 木克土함으로 이것 또한 相克이기 때문에 漢陽은 東쪽과 南西쪽으로부터 侵入을 막기에 게을리 하면 안된다고 하고 있다.

(라) 漢陽의 궁궐의 坐向을 결정하기 위하여 鄭道伝과 無學과 서로 意見이 일치하지 않았다. 즉 鄭道伝은 당시 古今의 學理에 通한 學者로 그는 白岳을 鎮山으로 한 南向을 主張하였으나 神僧 無學은 仁旺山을 鎮山으로 하고 南山과 白岳을 左右龍虎로 하는 坐向 즉 西生卯向(東向)을 主張하였으나 鄭道伝이 그의 의견을 계속 主張함에 그의 뜻대로 南向하여 配置하였다 한다. 이에 無學이 깊이 슬퍼하며 말하기를「新羅 名僧 義相大師의 山水秘記에 의하면 都를 選定하는 者가 僧의 말을 듣지 않으면 國運延長을 바랄 수 없고 만약 鄭氏의 사람이 나와서 是非를 벌리면 五世되지 않아서 相爭의 禍가 생기며 二百年內에 内外에 큰 亂이 있으리라 하였다」고 하며 이로 인하여 太宗의 兄弟가 骨肉相爭을 하였고 世祖의 反正과 壬辰의 亂을 맞게 되었다고 한다.

(마) 해태: 지금의 中央庁 光化門에는 두개의 해태가 있다. 이것은 大院君때에 만들어진 것으로 景福宮이 때때로 火災가 일어남은 南方에 있는 冠岳山이 景福宮을 直面하여 火氣를 뿜기 때문이라하여 이 氣를 누르기 위하여 불에서 사는 해태의 상을 만들어서 火氣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라 한다.

(바) 蚕室: 서울의 東南에 位置한 蚕室은 예전에는 沙平里라 하였는데 이것이 잠실이라고 부르게 된 경우는 서울의 南쪽에 있는 南山이 봉우리가 누에머리(蚕頭)와 같은 形으로 이 누에의 地氣를 旺盛하게 하기 위하여 그 南山의 東쪽에 보이는 當時의 沙平里에 뽕나무를 심게 하였다. 그리고 이곳을 蚕室이라 한것으로부터 由來 하였다 고 한다.

(사) 城門: 漢陽城에는 八大門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易의 八卦에서 비롯했다하며 門名도 風水學勝의 뜻으로 鄭道傳에 의하여 지어졌다고 한다.

南大門은 崇禮門이라 하는데 禮는 五行으로 보면 南方(火)에 속하기 때문에 (東仁, 西義, 南禮, 北智, 中央信) 南쪽임을 나타내기 위함에서 였으며 또 다른 문의 현판이

다. 橫書체로되어 있는데 오직 이 崇禮門만이 縱書체로 된것은 冠岳山의 火山의 火氣에 대항키 위한 目的에서였으며 또 冠岳山의 變主峯에 九個의 防火 부적을 넣은 향아리를 문었다고 한다.

(1) 東大門 : 東大門은 興仁門이다. 仁字는 木에 속하며 또 木은 東方을 의미한다. 따라서 興仁은 東方을 반기는 뜻이 있다. 그런데 興仁門을 興仁之門이라고 하여 之字를 넣어서 다른 門은 三字인데 이 문만은 四字가 되었다. 이것에 대하여서는 城의 東쪽의 地脉이 낮고 따라서 城廓도 低虛한 까닭에 이 弱勢를 補하기 위하여 之字를 넣었는데 之字는 玄字와 같아 來龍이 즉 山脉이 左折右曲하여 오는 것을 形象的으로 나타낸 文字임으로 이 之字를 넣어 山을 쌓아 補強하는 勞力을 대신하여 厭勝의으로 山脉을 文字로 바꾸어 使用한 것이다.

(2) 彰義門 : 전하는 바에 의하면 彰義門은 그 外部의 地勢가 마치 지네와 같은 形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지네의 氣를 적게하기 위하여 닭의 모양을 나무에 파서 문에 달았다고 한다.

(3) 肅靖門은 北門으로 北漢山으로 통하는 門으로 오래 전부터 閉鎖되어 있고 열지 않았다. 그 까닭은 이문을 열면 城內의 마을에 淫亂한 風이 增加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南大門인 光熙門도 역시 權宗 元年에 陰陽家로부터 巽方을 열면 不吉하다 하여 닫았다고 한다.

(4) 大漢門은 德壽宮의 宮門인데 元來는 大安門 이었다고 한다고 한다. 그런데 고종의 執權當時 寵臣玄映運의

妾 裴氏가 洋裝을 하고 그 門을 자주 出入하였다. 그런데 近臣中에 이것을 시기하는 者가 이것을 王에게 고하여 秘記에 大安門의 安字는 女가 冠을 쓴安임으로 만약 이 冠을 쓴 여자가 이문을 出入하는 경우에는 나라가 亡한다고 注意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니 王은 이에 感動하여 즉시 裴氏의 궁궐出入을 嚴禁시키고 또 門名도 大漢門으로 變更하였다.

(아) 往十里 : 서울의 東쪽 약 十里에 往十里라는 洞里有 있다. 이는 李太祖가 忠南鷄龍山에 新都邑을 建設코저 그 工事를 着手하자 山神이 太祖의 꿈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이곳 鷄龍山은 將來 鄭氏가 都邑할 땅이고 李氏는 漢陽에서 都邑地를 찾는편이 좋다고 말하기 때문에 太祖는 無學等을 거느리고 漢陽으로 向하였다. 그래서 漢江의 연안을 따라서 王城宮궐의 터를 찾기 위해 여러날을 보냈으나 아직 그 精確한 장소를 찾지 못하였을때 하루는 지금의 往十里에 이르러서 주위의 山川을 調査하고 있을때 한편으로는 北岩의 南쪽과 南山의 사이가 상당히 넓은 明堂이 있는듯하여 바라보고 있을때 한 노파가 나타나서 太祖를 向하여 무엇을 찾고 있는가 물었다. 太祖는 國都를 찾기 위해 苦心한다고 對答하자 노파는 그러면 十里를 가라고 쉽게 말하였다. 노파가 이런 중대한 일을 쉽게 말하는 것이 이상히 생각되어 다시 그 노파의 얼굴을 보려고 하는 사이에 그 노파는 어느덧 멀리 사라져 버렸다. 太祖와 無學은 이것이 반듯이 神의 啓示라고 생각하고 드디어 北岳의 南쪽에 가서 궁궐의 터를 찾았다고 한다.

本協會員